

포스트모던 시대의 윤리적 위기와 책임윤리의 과제*

문 시 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포스트모던, 윤리의 위기인가? 위기의 윤리인가?
- III. 포스트모던을 보는 눈: W. Schweiker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 1. 포스트모던 윤리위기의 원인: 반실재론의 도전
 - 2. 포스트모던 윤리위기의 대안: 통전적 책임윤리
 - 1) 해석학적 실재론에 기초한 책임윤리의 가능성 모색
 - 2) 해석학적 실재론에 기초한 책임의 명법
 - 3) 포스트모던 시대의 책임윤리 모색의 의의와 한계
- IV. 나오는 말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남서울대학교 연구진흥지원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 국문초록 •

이 글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거대담론으로 취급당하는 기독교윤리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다. 특별히 기독교적 책임의 윤리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기독교윤리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윤리상황을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다원주의적 세계관이 이끌어가는 현대사회의 윤리적 위기의 원인을 도덕적 반실재론에서 찾았다. 반실재론자들은 도덕이란 자연의 질서를 반영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그 구조에 의해 발명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실재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반론이 시도되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반실재론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하나로 이른바 해석학적 실재론을 수용한 슈바이커의 책임윤리를 근간으로 삼아 도덕적 책임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의 이론은 다원주의적 시대에 무시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요구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삶을 위한 통전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이 글에서 제안하는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기독교윤리를 위한 논의를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실재론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반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윤리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되고 풍요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포스트모더니즘, 도덕실재론, 책임윤리

I. 들어가는 말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윤리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른바 거대담론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나름대로의 자기변명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혹은 포스트모던에 관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대부분 기독교윤리의 대안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하겠지만, 어떤 관점에서 어떤 해법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정황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우리시대의 포스트모던적 경향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책임윤리를 제안하고 그 과제를 성찰하는 데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의 문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경향을 답습하기보다는 포스트모던의 이면에 자리한 또 하나의 요소, 즉 테크놀러지와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그 윤리적 해법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윤리학의 두드러진 경향성이라 할 반실재론 또는 구성주의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책임의 개념이 개입된다. 책임은 포스트모던과 테크놀러지라는 현대사회의 두 가지 징후들을 윤리학의 관점에서 연계시키는 핵심개념이 될 것이다.

II. 포스트모던, 윤리의 위기인가? 위기의 윤리인가?

지구촌윤리(Global Ethics) 또는 보편윤리(Universal Ethics), 이야기윤리(Narrative-Ethics) 및 덕의 윤리(Virtue-Ethics), 여성윤리(Feminist Ethics)와 보살핌의 윤리(Care-Ethics) 등 현대사회를 위한 윤리적 사유는 다양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의를 지닌 여러형태의 윤리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얼핏보면 윤리학의 풍요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뒤집어 보면 현대사회의 윤리적 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금은 당혹스러운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윤리의 위기

인가?’ 혹은 ‘위기의 윤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직면하여 우리시대가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¹⁾ 포스트모던의 의미를 후(後)근대로 볼 것인지 혹은 탈(脫)근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겠지만,²⁾ 현대사회의 윤리적 맥락이 포스트모더니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포스트모던의 두드러진 현상인 다양성과 다원성의 기조 하에 인간해방적 측면과 함께 윤리적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³⁾

포스트모던의 여러 모습이 묘사되어야 하겠지만, 그 순기능적 의미를 찾는다면, 인간해방적 요소를 강조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여성의 권익증대 및 성 해방의 역사는 여성윤리라는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푸코(M. Foucault) 등의 포스트모던 해방운동은 근대적 이성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형식주의적 보편주의의 한계를 허물고 새로운 사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는 동시에 심각한 윤리적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른바 거대담론(metanarrative)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체계적 합리성을 와해시키고 지역적,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과 다원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를 배태하고 있다.⁴⁾ 이 과정에서 신학과 교리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도덕실재론(moral realism)까지도 극단의 거대담론으로 치부되어 해체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지만, 우리시대의 여러 분야에

1) Grenz, S. J.,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윤리학의 흐름』(IVP, 2001) 243면

2)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IVP, 2001) 13면

3) Schweiker, W., *Power, Value and Conviction: Theological Ethics in the Postmodern Age*,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윤리』(도서출판 살림, 2003) 6-33면

4) Grenz, S. J., 같은 책, 277면

윤리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대안과 해법의 모색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위기를 전제로, 그 대안의 모색을 위하여 책임의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책임에 관한 윤리적 성찰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났다. 기존의 페러다임에서는 주로 책임의 귀속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윤리학에 있어서 책임의 문제는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요나스(Hans Jonas)의 관점은 이러한 재발견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의 책임윤리는 특별히 생태계의 위기와 관련하여 인류의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탐색의 필요성에 동조하면서 책임의 문제를 테크놀러지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던적 맥락에 맞추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테크놀러지와 포스트모던을 경시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적절한 윤리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책임윤리를 보다 포괄적이며 발전 가능한 이론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테크놀러지적 특성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필자의 문제의식은 포스트모던적 특성을 고려한 책임의 문제를 전개할 기초작업의 필요성과 연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필자는 슈바이커(W. Schweiker)의 개념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책임윤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슈바이커의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윤리』(Power, Value, and Conviction: Christian ethics in post-modern age)에 나타난 도덕실재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책임에 관한 재해석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포스트모던적 윤리상황에 있어서 책임의 윤리는 주로 윤리적 실재론의 문제와 함께 도덕적 위기의 탈출구 모색에 그 주된 관심을 가진다. 다시말

해 책임의 윤리는 포스트모던적 윤리상황이 기본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가치실재론의 재발견을 돕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는 힘의 문제에 대한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생명 및 의료윤리, 그리고 유전자공학과 환경위기의 문제 등을 망라하는 일종의 거시윤리(macro ethics)의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윤리의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로 진단하고 책임윤리의 확립이야말로 포스트모던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대안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III. 포스트모던을 보는 눈: W. Schweiker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1. 포스트모던 윤리위기의 원인: 반실재론의 도전

포스트모던 시대의 윤리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기독교윤리학의 대안모색에 노력하고 있는 슈바이커의 진단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윤리적 상황은 몇 가지 사실들이 뒤엉켜 있다.⁵⁾ 첫째, 많은 사람들이 전지구적 차원의 도덕적 조망을 추구하지만, 지구상에는 깊고 넓게 확산된 도덕적, 문화적 다양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것은 다양성 또는 다원성의 문제이다. 둘째로 인간의 힘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유전적 특징까지도 변경시킬 정도로 충격적인 증대와 확산의 국면에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호연관적이어서 정보화시대 또는 테크놀러지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지구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미디어 개발을 통해 하나의 지구라는 의식의 형성 문화적 다양성의 인식을 낳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윤리에 대한 논의는 다원성(plurality)을 그 단초로 삼는다.

5) Schweiker, W., 같은 책, 44면

한마디로, 현대인과 현대사회는 중대한 도덕적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유전공학적 문제들로부터 민족주의와 국가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그 목록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⁶⁾ 민족과 문화 및 종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각기 다른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모아 포스트 모던이라는 코드로 종합할 수 있겠다. 문제는 포스트모던적 징후들에서 볼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과 다원성의 주장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다양성에서도 찾아야 한다. 포스트모던의 시대가 가져온 긍정적 요소들 이면에 전제된 윤리적 위기에 대한 해석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⁷⁾

분명한 것은 하나의 세계, 다양한 도덕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통해 관용과 이해, 그리고 타협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으며, 보편타당한 것으로서의 윤리적 주장의 설자리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점이다. ‘지구촌’(a global village)은 하나의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상이한 문화 및 신념체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많은 도덕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성의 사실로부터 현대의 윤리적 사유가 지향해야 할 이념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다원적 사실성이 곧바로 가치와 도덕의 다원성으로 등식화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다원주의 자체가 도덕의 대체물이 되어 균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원주의가 곧 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지

6) Schweiker, W., 같은 책, 45-57면

7) 이러한 와중에 윤리적 위기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등장하여 윤리학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정지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J. Habermas)와 아펠(K. Otto Apel) 등을 비롯한 정치철학의 계열에서 나타나 윤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담론윤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윤리학 보다는 사회철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윤리’라는 표제만 달아 붙인다고 윤리학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문의 고유한 전문영역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않기 때문이다. 다원성이 사실에 대한 보고라 한다면, 다원주의는 일종의 가치 및 신념의 체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원주의를 현대의 윤리적 상황에 대한 당연한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른바 도덕적 합의의 상호불가공 약성(incommensurability),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공유된 기초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파생된다. 그 결과 중립적인 도덕언어가 개발되거나 공동의 보편적 도덕의 필요성으로 성급하게 연결되기도 한다.⁸⁾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의 하나가 이른바 덕의 윤리이다.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를 비롯한 현대의 덕 윤리학자들은 행위에 내재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⁹⁾ 그들은 현대사회에서 윤리학이 해야 할 일은 도덕적 지혜의 전통을 발굴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전통주의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현대영미철학의 이른바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libertarianism-communitarianism debate)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 그 해결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¹⁰⁾

덕의 윤리가 제공하는 관점 이외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도덕반실재론 또는 윤리학적 반실재론(moral anti-realism)이다. 예컨대 인권과 같은 도덕적 원칙과 가치는 그 문화 안에서만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도덕적 신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념의 타당성은 그것이 발생된 문화에 연관된 상대적이라는 주장이 그 기저에 있다. 이러한 반실재론은 구성주의 윤리에서 두드러진다. 그 요체는 보편적으로 공유된 인간의 가치나 행위규범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판단작업에는 문화

8) 이 주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의 책을 권하고 싶다. Jeffrey Stout, *Ethics after Babel: The Languages of Morals and Their Discontents* (Boston: Beacon Press, 1988).

9) 현대사회에 있어서 덕의 윤리에 관한 논의는 주로 MacIntyre, A.,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필자가 보기에 맥킨타이어는 니체적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 도덕의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듯 보이지만, 그의 노력이 과연 성공적인 것이었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10) 문시영, 『남서울대학교논문집』 제3집, 1997, 22-24면

적 전통과 편견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도덕적 다원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종교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전제하고 있으며, 인간 본성에 도덕이라는 틀이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의 기초이었던 도덕실재론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으로 실재론의 기초 위에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실재 또는 자연 및 인간실존에 기초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도덕판단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가령, 덕의 윤리를 주장한 맥킨타이어가 추종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전제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인간으로서의 특징에 기초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정을 추구해야 하며 이성적 능력의 완전한 구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도덕법을 각인해 두셨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특정한 도덕적 정황이나 판단에서 실수할 수 있으나 양심은 선과 악을 알게 함으로써 삶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도덕의 기초는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현대철학과 사회과학에는 등장한 사회구성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실천과 문명활동, 그리고 의미체계는 인간의 발명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화는 상징적 세계구성의 과정이며, 인간은 문화창조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학, 사회학, 종교사학, 과학철학, 그리고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대단하다. 그들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재란 사회적이고 언어적인 구성물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실재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몇 가지 특성들만으로 포스트모던의 윤리적 경향을 단적으로 구성주의 또는 반실재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도식화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윤리학에 등장한 도덕회의론이 반실재론을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매키(J. L. Mackie)에 따르면 윤리학이란 옳고 그름을 발명해 내는 작업이다.¹¹⁾ 도덕은 각기 다른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서 표현되는 삶과 세상에 관한 신념 안에서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도덕적 가치와 심지어 도덕적 명령조차도 특정한 방식의 선택 또는 결단에 의한 것이라 해야 한다. 매키를 강한 도덕회의론에 넣을 수 있다면, 그의 주장은 도덕적 가치란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위를 가릴 대상이 되지 못하며, 도덕적 가치는 취향의 문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티(R. Rorty)를 비롯한 약한 도덕회의론자들은 도덕적 주장의 진위는 가릴 수 있으나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담론의 형식과 관행을 존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¹²⁾ 강한 회의론과 약한 회의론 모두 사회나 개인을 떠나 도덕적 신념의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별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가치와 가치대조는 사회적 암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던과 책임의 윤리에 관한 논의에 실재론과 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에서 논의되었던 윤리학의 기초에 관한 복잡한 이론적 논쟁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포스트모던의 상황에 등장한 구성주의 또는 반실재론은 윤리이론상 전통적인 실재론에 도전하는 새로운 학설의 등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반실재론 또는 구성주의의 등장은 인간존엄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귀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구화의 요소들은 특히 정보통신기술(IT)을 통해 드러다 볼 수 있다. 이 기술은 가치 대조감각을 형성시켜주기도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광

11) Mackie, J. L., *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 (Harmondsworth, Eng. :Penguin Books, 1977), 30면

12) 현대철학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읽도록 권하고 싶다. Rorty, R.,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로티의 입장을 굳이 구분한다면, 약한 회의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범위한 도덕회의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실재론 또는 회의론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책임의 윤리에 새롭게 주목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시도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메타포 윤리(metaphorical ethics)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비판적 실재론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체로 반실재론자들을 잠재울만한 위력은 지니지 못한다. 카우프만(G. Kaufman), 맥파그(S. McFague) 등은 칸트의 관점을 기초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제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상상력을 통해 비판적으로 구성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심지어 하나님의 칭호 역시 인간이 삶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구성해 낸 하나의 메타포 또는 이미지라고 한다.

맥파그에 따르면, 인간은 생태학적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방향짓기 위하여 하나님을 친구로, 세상을 하나님의 몸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적 구성물은 도덕적 목적이라는 실재를 구성하기 위한 방식에 불과하며 그 진위는 실용성에 의해 가려진다고 주장한다. 생태학적 시대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지구를 위한 의무감의 부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주장이 도덕의 특정개념을 위해 그 기능을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으로는 반실재론들을 압도했다는 평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 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이야기 윤리(narrative ethics)에서는 문화적 세계로부터 기독교적 공동체에도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제한한다. 하우어워스(S. Hauerwas)를 비롯한 이야기윤리에 속하는 신학자들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의 언어적 코드는 이 세상에 대한 독특한 의식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이야기의 진실은 이야기와 그것을 말하는 공동체와도 별개일 수 없다.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으며 도덕적 진위 판단을 포함하는 기초적인 가치대조는 이야기 공동체와 내적 연관성을 지닌다.

하우어와스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그 공동체의 개념적 도식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마련이다. 기독교인의 임무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믿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반실재론의 주장을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기독교윤리의 특성을 공동체에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¹³⁾

2. 포스트모던 윤리위기의 대안: 통전적 책임윤리

1) 해석학적 실재론에 기초한 책임윤리의 가능성 모색

포스트모던 윤리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도덕실재론에 대한 반실재론의 도전과 그로 인한 도덕회의론이라 할 수 있다면, 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아마도 실재론의 옹호와 그 이론적 대안의 제시에 있다고 하겠다. 지구상에 도덕적 다원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덕실재론자들은 여전히 진정한 도덕적 질서, 가령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질서가 실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할 것이다. 도덕적

13) 도덕실재론에 관한 논의는 Schweiker, W., *Power, Value and Conviction: Theological Ethics in the Postmodern Age*,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윤리』(도서출판 살림, 2003) 56-145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원성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곧 도덕질서를 식별해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법으로도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대두된 반실재론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정공법은 아닐 듯 싶다. 전통적 실재론은 실재의 본성 그 자체가 도덕적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특히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이러한 본성과 가치가 하나님에게 연계된다고 생각하여 왔으나, 포스트모던적 맥락에서 자연의 질서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관조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출산조절과 같은 일들을 시행하면서 자연의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 한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이 도덕의 기초라는 생각을 비판하고 자연과학적 관점을 취하게 되면서 도덕적 상대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과연 전통적 도덕실재론을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고집하는 것만으로 구성주의자들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슈바이커가 제안하는 해석학적 실재론(hermeneutical realism)의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는 구성주의 또는 반실재론에 대한 논박과 함께 현대기독교윤리에서 시도된 내적 실재론 또는 비판적 실재론에 대한 논평을 거쳐 해석학적 실재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인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가치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차원들을 통합하여 가치와 힘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슈바이커가 주장하는 해석학적 실재론은 인문과학의 방법론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해석학을 실재론과 연관짓고 있다는 점에 독특성이 있다. 특히 리쾨르(P. Ricoeur)의 관점을 윤리학의 분야에 적극 응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슈바이커의 요점은 통전성의 개념에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과 문화에는 인간됨에 관한 몇 가지 상호 연관된 차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념과 가치가 수반된다.

여기에는 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과 그에 따른 가치들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이 고려된다. 첫째, 인간이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것은 신체적 통전성의 요구이다. 둘째, 인간이 사회적 특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법률체계가 필요하고 정치적, 경제적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문화들 사이에 전이되기도 한다. 셋째, 인간은 개별자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통전성이 요구된다. 인간의 열망과 고난 및 좌절의 의미, 문화적 신념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 실존적 삶의 의미와 함께 종교적 전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의 도덕과 규범은 삶의 여러 차원에 따른 필요들의 가치를 어떻게 존중하고 함양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슈바이커가 말하는 삶의 통전성은 이러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¹⁴⁾

특히 기독교적 인간이해는 이러한 해석학적 실재론의 중요한 모티브이다. 삶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함양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며 여기에 속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윤리적 상황에 응답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에서 용기와 창의성이 요청된다. 그것은 두려움과 자기이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라는 감사와 경외심에 바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단초인 셈이다.

2) 해석학적 실재론에 기초한 책임의 명법

슈바이커의 실재론 논의는 메타윤리학적인 정교한 이론의 탐색에 속한 다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의 논의

14) Schweiker, W.,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대한기독교서회, 2000) 193-201면

는 실재론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그의 독특한 책임이론에 연계된다. 슈바이커의 책임개념은 해석학적 실재론의 결론, 즉 인간존엄의 통전적 존중을 위한 통전적 책임의 윤리로 전개된다. 해석학적 실재론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슈바이커의 책임윤리는 실재론과 반실재론이 보여주는 윤리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수용하고 있다. 그의 책임개념은 전통적인 윤리적 패러다임만으로는 포스트모던적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반실재론적 통찰과 기독교적 인간이해에 기초한 대안의 모색이라는 실재론적 통찰을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슈바이커의 책임윤리가 전제하는 문제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모던 시대에 삶의 통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비인격적이고 통제불가한 힘에 의해 인간의 삶은 크게 진보할 수 있는 동시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가령,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인간의 종을 변형시킨다면,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환경오염은 시시각각으로 방대한 삼림을 황폐화시키며 생물의 종을 급격히 소멸시키고 있다. 지구화를 앞세운 다국적 정치, 경제 시스템은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경제적 이익의 뒷전에 가리워 보려는 시도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윤리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존엄을 위한 삶의 통전성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가? 삶의 통전성을 저해하는 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테크놀러지와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삶의 통전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함양시킬 것인가? 슈바이커의 통전적 책임의 윤리가 짚어진 과제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다.

만일 우리시대가 테크놀러지를 추진력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적 경향을 지닌 시대라 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삶이란 인간의 힘이 증대됨에 따라 가능해진다고 생각과 함께 힘의 극대화를 통하여 인간을 신적 지위에 해당하는 존재로 과장하게 될 것이다. 포스트모던적 문화와 그 테크놀러지적

추진력은 상호결합을 통하여 인간존엄의 가치를 하나의 구성물로 보려할 것이며 하나님 대신 힘을 숭상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덕의 중심은 힘이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윤리적 정황이다. 다시말해 하나님, 인격적인 삶 등의 도덕의 중심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동시에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함양되어야 할 가치들이 그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그 자리는 테크놀러지를 위시한 힘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

책임의 윤리는 이러한 가치의 역전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힘을 삶의 통전성 존중 및 함양에 사용되도록 기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책임윤리는 인간의 필요와 그 가치를 고려하면서 인간에게 전개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응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대에 가장 긴요한 과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삶에 관한 기독교적 확신에 표현된 힘(Power)과 가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힘이 곧 인간의 궁극적 선이라고 할 수 없다. 힘은 생명을 존중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변형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책임의 과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슈바이커가 말하는 통전적 책임의 명법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함양하라.’¹⁵⁾

슈바이커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 또는 다원성에 관한 논의의 여지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모든 인류가 동일한 하나의 가치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이 바로 테크놀러지 시대의 인간의 힘의 확장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윤리적 반실재론과 결합되어 도덕적 구성주의 또는 도덕회의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

15) Schweiker, W., 같은 책, 60면

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즉 인간존엄의 위협이라는 도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3) 포스트모던 시대의 책임윤리 모색의 의의와 한계

이제까지 우리는 책임의 문제를 테크놀러지의 맥락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던과 대면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 왔다. 특히 슈바이커의 해석학적 실재론과 통전적 책임의 명법을 고찰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는 먼저 현대사회의 윤리적 정황을 인식함에 있어서 테크놀러지의 문제에 못지않게 포스트모던적 정황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그 해결을 모색한 슈바이커의 문제의식에 깊은 동감을 표한다.

어찌보면, 테크놀러지와 포스트모던은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하나의 틀에 넣어 보려는 것 자체가 짧은 생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두가지 모습은 현대사회의 양면성일뿐 상호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슈바이커 시도가 책임윤리의 지평을 테크놀러지와 포스트모던의 정황에 개방시켜준 것이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그의 논의는 현대사회의 기독교윤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현대사회에 두드러진 포스트모던적 요소에 이른바 반실재론 또는 구성주의 윤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윤리적 책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매우 탁월하고 독창적인 안목이라 평가하고 싶다. 이것은 테크놀러지와 책임의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테크놀러지 시대의 기독교적 책임의 문제를 포스트모던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간주되기 쉬운 요소와 연계시키고자 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대기독교윤리에 있어서 책임의 윤리는 기술시대의 책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목표로 삼는다. 현대의 기술이 억압적인 사회적 힘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긍정적이고 해방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일한 기술에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이 공존하기도 한다. 테크놀러지가 주도하는 현대사회는 평신도 신학자 엘룰(J. Ellul)의 저술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관점이 절실한 시대이다. 기술에 대한 엘룰의 비신격화는 예언자적 증언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¹⁶⁾ 우리가 수단들을 단지 수단으로 인식해야 하며 비실용적인 목표들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목표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유일한 특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을 무시하지 않는 목표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슈마허의 관점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⁷⁾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크놀러지 일변도의 책임윤리를 포스트모던적 요소와 연관지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슈바이커의 이론에 동의하는 부분이 특히 이 대목이다. 포스트모던은 이미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되어 있고 그 분석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윤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기독교윤리학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포스트모던의 배후에 구성주의와 반실재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낸 것은 현대기독교윤리학의 새로운 과제와 영역을 제안해주는 중요한 공로가 아닐 수 없다. 이점에서 필자는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윤리의 과제를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아쉬운 것은 우리의 논의를 통해 포스트모던과 테크놀러지의 연관관계

16) Monsma, S., ed., *Responsible Technology*, 양성일 외역, 『책임있는 과학기술』(도서출판 CUP, 2000) 359면

17) Schmacher, E. F., *Guide to the Perplexed*(NY: Harper & Row, 1977) Chap.3

를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제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포스트모던을 새로운 활력소로 간주하려는 부류에게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겹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또다른 관점에서, 슈바이커의 이론에 기초한 우리의 논의는 통전적 책임의 문제를 전개하기 위한 사회윤리적 마인드를 강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이 부분은 테크놀러지와 책임의 문제에 관한 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특히 이 글에서 통전적 책임의 윤리를 위한 사회구조와 그 대안의 모색을 포스트모던의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기에는 지구화 문제를 비롯한 다각적인 관점이 동원되고 그 해결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IV. 나오는 말

이 글을 통하여 책임의 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새롭게 모색하여 보았다. 특히 포스트모던의 윤리적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다원성을 강조하고 수용하는 입장에서 관용과 대화를 위주로 하는 여러 관점들이 모색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주장들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포스트모던의 이면에 내재한 반실재론과 구성주의적 도전에 대해 책임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중요한 테마를 던져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기독교윤리의 핵심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포스트모던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

서 기독교윤리가 해야 할 몫을 새롭게 발견할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의 윤리는 테크놀러지의 맥락에서만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KCS I

참고문헌

- 고범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윤리」(도서출판 소화, 1998)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IVP, 2001)
- 한국철학회, 「기술문명에 대한 철학적 반성」(철학과 현실사, 1998)
- 문시영, 『남서울대학교논문집』 제3집, 1997
- Couch M., *Issues 2000: Evangelical Faith and Cultural Trends in the New Millennium*, 문석호 역, 「포스트모던시대 속의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도서출판 신앙과 지성, 2001)
- Grenz, S. J.,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윤리학의 흐름」(IVP, 2001)
- Griffin, D. R., *God and Religion in the Postmodern World: Essays in Postmodern Theology*, 강성도 역, 「포스트모던 하나님, 포스트모던 기독교」(한국기독교연구소, 2002)
- Jeffrey Stout, *Ethics after Babel: The Languages of Morals and Their Discontents* (Boston: Beacon Press, 1988)
- Monsma, S., ed., *Responsible Technology*, 양성일 외역, 「책임있는 과학기술」(도서출판 CUP, 2000)
- Schmacher, E. F., *Guide to the Perplexed*(NY: Harper & Row, 1977)
- Schweiker, W.,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대한기독교서회, 2000)
- Schweiker, W., *Power, Value and Conviction: Theological Ethics in the Postmodern Age*,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윤리」(도서출판 살림, 2003)
- Mackie, J. L., *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MacIntyre, A.,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Rorty, R.,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ABSTRACT

A Study on Ethical Responsibility for Post-modern Moral Crisis

Moon, Si Young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ethical theory based on Christian moral view for response to moral crisis in postmodern age. Specially it focused on Christian moral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this purpose, it studied anti-realism as the source of moral crisis in post-modern age. Anti-realism says morality is not realistic but inventional. And in pluralistic world view, traditional moral theories based on realism are regarded as meta-narrative. Unfortunately, moral realism seems to be failed in effective counterargument to anti-realism.

Now, this paper started from this reason and studied hermeneutical realism as an alternative theory for anti-realistic challenge. For example, W. Schweiker insists moral integrity based on this view. His concept of moral responsibility is focused on responsive proposal to anti-realistic theory in post-modern, technological age.

On this basis, this paper studied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moral responsibility in Christian ethics. Of course there are so many styles of moral responsibility in Christian ethics and moral philosophy.

H. R. Niebuhr proposed the idea of responsible self, H. Jonas insisted responsibility in technological age for next generations. This paper integrated concepts of responsibility for effective response to anti-realistic view in the age of ethical crisis.

Now, conclus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 counterargument to anti-realism is urgently needed for Christian ethics in post-modern age which regards it as meta-narrative in pluralistic world view.

Second, Christian moral responsibility must be deepen and abundant theoretically. This paper hope to be a guide to more sound theory of Christian moral responsibility in the age of post-modernity and technology.

